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Fathers' Daily Stress and Child-Rearing Involvemen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안설하**

부교수 문혁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M.A. : An, Seol-Ha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Abstract>

Both direct and indirect courses are studied in this research to study the effect of fathers' daily stres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participants were 281 parents of children aged between 3 to 5 attending 9 kindergartens in Seoul and the Gyeonggi-do, Jeolla-do, and Gyeongsang-do areas. The data was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method. Collected data for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the AMOS 16.0 program. The main poi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course of fathers' daily stress did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fathers' daily stress has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marital conflict. That is, the higher level of stress in the father's daily life, the deeper marital conflict that is found. And the deeper the marital conflict that exists, the lower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that is shown. Third, the direct course of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did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Fourth,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has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marital conflict. That is, marital conflict decreases as the father becomes more involved in child rearing. In addition, the lower level of marital conflict that exists, the higher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father's daily stress), 아버지 양육참여도(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유아 정서지능(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 본 논문은 석사 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안설하 (E-mail : gs-sura@hanmail.net)

***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론

우리는 일생동안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한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정서는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고, 이와 같은 정서적 경험은 이후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정서는 우리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와 정서에 대한 오랜 역사적 편견과 지나치게 인지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경시되어 왔다(Jung, Jung, & Lim, 2007). 현대에 이르러 정서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와 '지능'이 합쳐진 용어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I)'이라는 용어를 학술 논문에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Goleman(1995)의 「정서지능(Emotion Intelligence)」이라는 저서가 출판되면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이전에 중시하던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보다 정서지수(Emotion Quotient: EQ)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서로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무관심과 소외 등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의 시대가 가고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어 경쟁보다는 협동과 공존이 중요시 되고 있다(문용린, 2011). 이렇게 다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효율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서적 능력이 강조된다(Goleman, 1995). 게다가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에 대하여 학업성취나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능력은 정서지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IQ로 설명 가능한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Goleman, 1995). 이렇게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생에서의 성공에 있어서 IQ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Jung, Jung, & Lim, 2007). 더욱이 정서지능은 지능지수와 달리 후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시기에 따라 발달의 영향을 받는데, 유아기와 아동기가 정서지능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연구(Goleman, 1995)가 발표되어 유아들의 정서지능에 관심을 갖고 키워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정서반응을 학습하게 된다. 정서의 사회화 과정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찰을 통한 간접적 학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Jung, Jung, & Lim, 2007).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의 정서 기술은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주장(Salovey & Mayer, 1990)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어머니는 일차적 양육자로서 유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는 유아가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Dunn & Brown, 1991; Lee, 2006),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져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들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Kang, 2009; Kim, 2010; Kim, 2011).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증가하게 되어(Lee, 2002) 유아가 아버지와 접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버지도 일차적 양육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와 그 결과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고(Kim, 2000), 자녀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나왔으며(Jung & Choi, 1992),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im, 2001; Chi, 2007). 이와 함께, 아동은 어머니에게 애착을 형성하듯이 아버지에게 애착을 형성한다는 연구(Frodi et al., 1978; Yang, 1998)가 보고되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여 아버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역할 변화로 인해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많아지면서 아버지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가족스트레스연구회(1995)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면서 신체적인 피로가 많아지고 개인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아버지들은 양육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문제 등에 직면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스트레스 느끼게 되면 짜증을 내게 되고(Dumas & LaFrenier, 1993),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누적됨에 따라 자녀 양육 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어 결국에는 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Cmic & Greenberg, 199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스트레스 상황이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Woo, 2007). 일상적 스트레스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중대한 생애 사건보다 더욱 위협적이기 때문에(Kanner et al., 1981; Lazarus & Folkman, 1984; Han & Park, 1996),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하다(Crnic & Greenberg, 1990)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im(2001)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Lee(2003)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 부적인 관계를 밝혀냈다. Ahn(2000)은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면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Patterson(1983)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부모들은 유아에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에 대해 유아는 공격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Crnic, Gaze and Hoffman(2005)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상적 스트레스를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직·간접적으로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부모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요 생활 사건에서 일어나는 특정 스트레스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의 미세한 효과들로서의 스트레스 작용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Delongis et al., 1982; Suls, Wan, & Blanchard, 1994).

이와 같은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자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당사자의 모든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아버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우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배우자와의 갈등 시 부정적인 해결행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Lee, 1998; Chun, 2000), 이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며(Kim & Seo, 2008), 심할 경우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Cohan & Bradbury, 1997). 부부갈등 상황은 남편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된다. 양육참여도와 부부관계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여러 연구결과들(Lee, 2007; Jeong, 2009; Park, 2009)은 양육참여가 낮아지면 부부관계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 스트레스나 양육참여도 등의 아버지 관련 변인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상황을 유발하게 되면 갈등 상황에 놓인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부부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변화되어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달되게 된다. 유아의 조절되지 못한 충동

적 행동이 부부간의 갈등 수준이 높은 부모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Choi, 2004; Jung, 2007)과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은 부부 갈등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에서 부부갈등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 그리고 유아의 정서지능은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라는 매개변인을 포함한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Fagan(2000)의 연구와 부부갈등이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한다는 Lee와 Lee(2001)의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 그리고 유아 정서지능의 사이에서 부부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현대 사회의 변화가 아버지의 양육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더 나아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만 보는 것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경로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크다. 주변 환경의 영향이 중요한 유아기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의 직접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유아의 생활환경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모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부부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있어서 부부갈등 변인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매개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존재하여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해주는 변인이다(우수명, 2007). 또한 매개모델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다(Shin & Kim,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갈등의 매개적 효과를 규명하여,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매개변인인 부부갈등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밝히고, 유아의 정서지능에 있어서 아버지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 관련 변인이 유아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 알고,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유아들이 앞으로의 삶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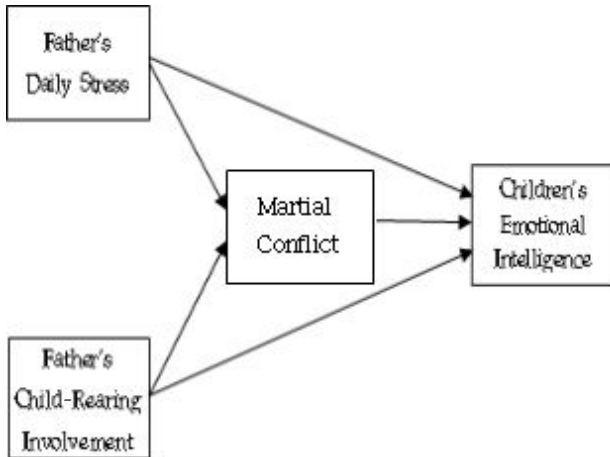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있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정서기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정서기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과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9곳에서 표집된 만 3·4·5세 반에 재원중인 유아 281명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남아 137명(48.8%), 여아 144명(51.2%)으로 총 281명이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48.4%, 모: 41.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졸(부: 21.0%, 모: 28.5%), 고졸 이하(부: 15.3%, 모: 25.3%), 대학원 이상(부: 15.3%, 모: 5.0%) 순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의 소득수준은 월 300~500만원 미만(40.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0만원 미만(29.5%), 500~700만원 미만(16.4%), 700만원 이상(13.5%)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9~12시간

미만(46.6%)이 가장 많았으며, 9시간 미만(37.4%), 12시간 이상(16.0%) 순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자녀와 놀이시간은 평일에는 1시간(67.6%)이 가장 많았고 주말에는 1~2시간(33.5%)이 가장 많았으며 평일에는 42명(14.9%), 주말에는 16명(5.7%)의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시간을 갖지 않았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Delongis, Folkman과 Lazarus(1988)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를 Kim(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응답자들이 하루 동안 일상생활사건(예: 집안일, 환경, 정치·사회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받지 않음(1)'에서 '많이 받음(3)'까지 Likert식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 아버지 양육참여도

아버지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ee, Lee와 Cho(1999)가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척도에서 양육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26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본래 양육참여 요인 26문항과 양육책임감 요인 14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참여 요인은 발달적지지 11문항, 자녀 돌보기 및 지도 9문항,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6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 않는다(1)'부터 '자주 한다(3)'까지 Likert식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총 .9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발달적 지지 .88, 자녀 돌보기 및 지도 .85,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83으로 나타났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Yeo(2001)가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도시 부부들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서 개인적 차원, 부부 관계적 차원, 제삼자 관계적 차원, 경제적 요인 등의 4가지 갈등차원에 따른 성격, 생활습관 및 태도, 의사소통, 성생활, 애정 및 친밀감, 자녀관계, 시댁/처가관계, 경제 등의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총 36문항 중 성생활 요인 중 부적절한 3문항을 제외한 총 3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총 .95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개인적 차원 .84, 부부 관계적 차원 .94, 제삼자 관계적 차원 .77, 경제적 요인 .72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ee(199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자기인식 및 표현능력 7문항, 자기조절능력 8문항, 타인인식능력 7문항,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 능력 9문항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부하량이 .5가 되지 않는 부적절한 2문항을 제거하고 총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총 .8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자기인식/표현 .81, 자기조절능력 .78, 타인인식능력 .87, 타인조절/대인관계능력 .7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6월~9월 동안 서울, 경기, 경북, 전북에 위치한 아버지 관련 행사를 하는 교육기관 9곳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을 하였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방식의 설문지 배부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버지 관련 행사를 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방문 후 기관의 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행사에 참여하신 아버지께 연구의 취지와 조사내용 및 방법을 알린 다음 아버지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부갈등, 유아의 정서지능을 조사하기 위한 어머니 설문지는 아버지가 연구에 참여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가 귀가할 때 각 가정으로 연구내용을 적은 편지와 설문지를 동봉하여 어머니가 응답한 뒤 유아를 통해 다시 기관으로 가져오게 하여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질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응답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용 봉투로 수거하였다. 총 5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짝이 맞는 질문지 320부가 회수되어 총 55.17%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9부를 제외하고 총 281부를 본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기술 통계치와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경로모형의 측정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잠재변수들이 측정변수들을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Hong, 2000). 추정 방식은 최대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e)에 의한 추정법이 이용되었고, 모델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와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법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스트레스 점수를 보면 1~3의 응답범위 중 평균 1.42($SD=.26$)으로 스트레스 점수가 대체로 낮은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1~3의 응답범위 중 평균 2.25($SD=.41$)으로 중간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양육참여도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M=2.43$, $SD=.45$)이 가장 높은 참여도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녀 돌보기 및 지도($M=2.21$, $SD=.45$)와 발달적 지지($M=2.20$, $SD=.44$)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수준은 1~4의 응답범위 중 평균 1.91($SD=.46$)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제적 요인($M=1.82$, $SD=.66$)이 가장 낮은 갈등수준을 보였고, 다른 요인들도 중간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유아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1~4의 응답범위 중 평균 3.07($SD=.28$)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중 자기인식/표현 능력($M=3.37$, $SD=.39$)은 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기조절 능력($M=2.67$, $SD=.4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측정모형 분석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 양육참여도, 그리고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구성 개념들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측정도구가

Table 1.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105.9	49	.000	.949	.962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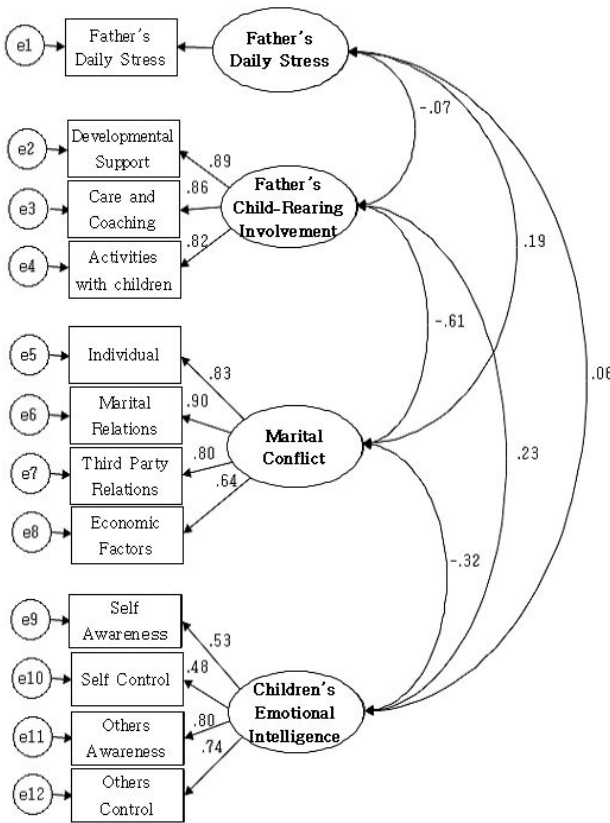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해당 속성을 정확히 나타내는지를 보여준다(김계수, 2007). 타당성에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등이 존재하는데 구조방정식 모델의 검증에 많이 사용되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계산방식은 최대우도법에 의한 추정법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밖에 여러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사용하였다.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1>과 같다. χ^2 는 105.9(df=49, p=.000)이고, TLI는 .949, CFI는 .962이며, RMSEA는 .064로 나타났다. TLI, CFI

는 .90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RMSEA는 .1~.08은 보통, .08~.05는 양호, .05이하는 좋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본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며 수렴타당성이라고도 한다. 집중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등이 있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이상, C.R 값이 1.965 이상이어야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평균분산추출값의 수치가 .5이상, 개념신뢰도의 수치가 .7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방법을 모두 검증하였고, 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측정변수 중 자기조절능력 요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β)이 .479로 .5보다 낮게 나왔으나 신뢰도(Cronbach's α) 값이 기준치 이상 나왔고, 개념신뢰도 값과 AVE 값 또한 .8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또한 Lee(1998)의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개발된 척도이며, 이미 정서지능의 구성개념으로 사용되어져왔기 때문에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측정변인의 C.R(Critical Ratio)값이 최소 6.952에서 최대 16.963으로 모두 2.58보다 크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화 요인부하량(β)값은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 .9 이상, AVE .8 이상으로 높게 나와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판별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 하고, 개념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도록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에 ±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한 결과가 1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 χ^2 의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적($\chi^2=3.84/df=1$ 이상)인 차이가 나타나야 한

Table 2. Convergent Validity

Variables		B	β	S.E.	CR	p	Construct Reliability	AVE
Father's Daily Stress		1	-	-	-	-	-	-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ctivities with children	1	.823	-	-	-	.977	.933
	Care and Coaching	1.037	.859	.063	16.500	.000		
	Developmental Support	1.032	.885	.061	16.963	.000		
Marital Conflict	Economic Factors	1	.639	-	-	-	.955	.844
	Third Party Relations	.873	.801	.079	11.099	.000		
	Marital Relations	1.163	.904	.097	11.975	.000		
	Individual	1.006	.830	.088	11.388	.000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Others Control	1	.744	-	-	-	.948	.825
	Others Awareness	1.127	.797	.118	9.557	.000		
	Self Control	.712	.479	.102	6.952	.000		
	Self Awareness	.738	.529	.097	7.622	.000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81)

Variables	1	2	3	4
1. Father's Daily Stress	1			
2.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07	1		
3. Marital Conflict	.19**	-.61***	1	
4.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06	.23**	-.33***	1
Cronbach's α	.91	.94	.94	.89
Construct Reliability	-	.98	.96	.95
AVE	-	.93	.84	.83

** $p < .01$, *** $p < .001$

다. 변수 간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잠재변수 간 상관은 <Table 3>과 같다.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온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부갈등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609로 자승 값은 .37이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AVE 값은 .93, 부부갈등은 .83로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자승 값인 .37보다 높으므로 두 잠재변수 간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의 표준오차는 .014로 $(-.609 \pm 2 \times .014) = -.329 \sim -.889$ 로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약모델과 χ^2 값을 비교한 결과, 비제약모델의 경우 $\chi^2=105.9$, $df=49$ 이고, 양육참여도와 부부갈등의 공분산을 제약한 제약모델의 경우 $\chi^2=205.1$, $df=50$ 으로 두 모델 간 $\Delta \chi^2=99.2$ 로 유의적인 차이($\Delta \chi^2=3.84/df=1$, 이상일 때 통계

적으로 유의)가 나타나 세 가지 방법 모두에서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경우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자승 값은 .04로 AVE값 보다 작게 나왔고, 상관계수의 표준오차는 .007로 $(.185 \pm 2 \times .007) = .199 \sim .171$ 로 1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제약모델의 경우 $\chi^2=114.7$, $df=50$ 으로 $\Delta \chi^2=8.8$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검증 됐다. 또한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경우에서도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자승 값은 .11로 AVE값 보다 작게 나왔고, 상관계수의 표준오차는 .009로 $(-.325 \pm 2 \times .009) = -.307 \sim -.343$ 으로 1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제약모델의 경우 $\chi^2=127.0$, $df=50$ 으로 $\Delta \chi^2=21.1$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정서지능의 경우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자승 값은 .05로 AVE값 보다 작게 나왔고, 상관계

수의 표준오차는 .008로 $(.232 \pm 2 \times .008) = .248 \sim .216$ 으로 1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제약모델의 경우 $\chi^2=116.4$, $df=50$ 으로 $\Delta\chi^2=10.5$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각 잠재변수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판별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3) 법칙타당성

법칙타당성이란 구성개념간의 방향성에 관련된 것으로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선행연구 및 이론, 그리고 연구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면 법칙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Table 3>의 상관관계표를 보면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r=.1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유아의 정서지능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부부갈등($r=-.6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의 정서지능($r=.23,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r=-.33,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부부갈등 수준은 낮게 나타난걸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은 낮게 측정되었다.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의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계가 입증되었고, 부부갈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은 높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및 연구 가설의 방향성과 부합하기 때문에 법칙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3. 구조모형 분석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부부갈등이 부분 매개하는 모델을 기본모델로 설정하였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삭제한 완전매개모델을 경쟁모델로 설정하였다. 두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χ^2 차이의 값은 2.5, $df=1$ 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모델의 적합도 수준을 비교해보면 기본모델이 경쟁모델에 비해 TLI, CFI, RMSEA 모두에서 더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기본모델을 본 연구의 최종모델로 선정하였다. 기본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chi^2=107.0(df=50, p=.000)$ 로 나타났으며, TLI=.950, CFI=.962, RMSEA=.064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이에 연구모델이 표본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모델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4>와 같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beta=.150, p<.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beta=-.675, p<.001$) 또한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beta=-.318, p<.01$)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Table 4. Model Fit of Research Model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Proposed Model	107.0	50	.000	.950	.962	.064
Competing Model	110.5	51	.000	.948	.960	.065

Table 5. Estimates of Structural Model

Path	B	β	S.E.	C.R.	p
Father's Daily Stress →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098	.125	.053	1.857	.063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025	.045	.050	.495	.621
Marital Conflict →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155	-.318	.049	-3.166	.002
Father's Daily Stress → Marital Conflict	.241	.150	.086	2.808	.005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 Marital Conflict	-.675	-.602	.084	-8.016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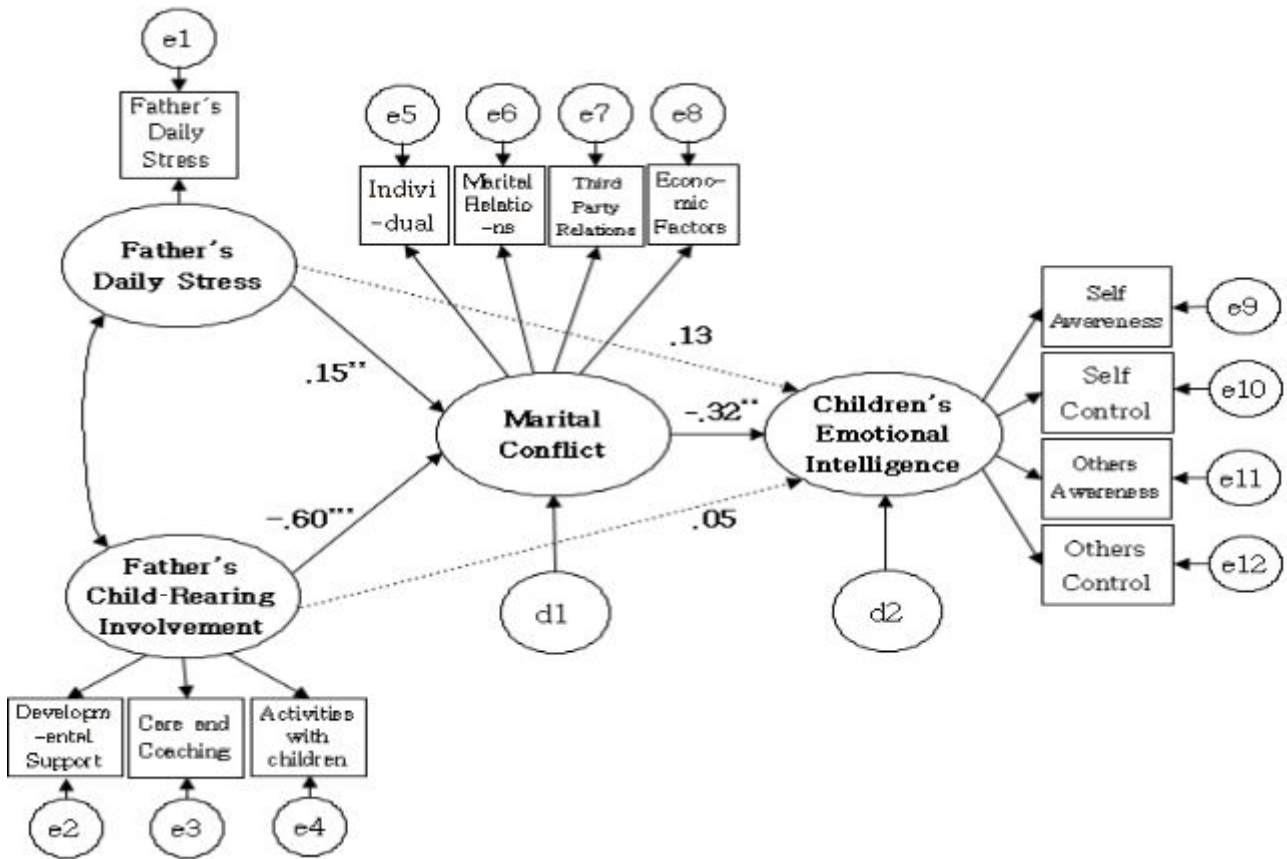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그리고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부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이렇게 부부갈등이 높아지면 유아는 낮은 정서지능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부갈등, 그리고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도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이 경로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부부갈등은

심화되고 높아진 부부간의 갈등 수준은 유아의 정서지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 양육참여도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수치와 유의성은 <Table 6>과 같다.

구조모형의 결과로는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만이 제시되고,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 < .01, *p < .001

Figure 3. Structural Model

Table 6. Bootstrapping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MC
Father's Daily Stress →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125	-.048**	.077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045	.192*	.237*	.124
Marital Conflict →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318*	-	-.318*	
Father's Daily Stress → Marital Conflict	.150**	-	.150**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 Marital Conflict	-.602**	-	-.602**	.385

*p < .05, **p < .01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변인들 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beta = -.048, p < .01$)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beta = .192, p < .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일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150, p < .01$)와 아버지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602, p < .01$)가 나타나고, 부부갈등은 유아 정서지능에 유의한 직접효과($\beta = -.318, p < .05$)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여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또한 완전매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부부갈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부부갈등($\beta = -.318, p < .05$)이고, 그 다음이 아버지 양육참여도($\beta = .237, p < .05$)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 양육참여도,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124로 나타나 12.4%의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했으며, 아버지 일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는 .385로 38.5%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부갈등에 대한 다중상관치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Cho(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아의 공격성정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Park(2007)의 연구와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들이 아버지와 접하는 시간이 어머니와 접하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최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아버지들의 부모교육 참여나 교육매체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 지면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Kim, 1999; Kim, 2004; Pyun, 2004; Woo, 2007)와 더불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Kim, 2001; Lee, 2003),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입증한 연구결과(Crnic, 2005)들은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아버지와 유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은 심화되었고,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은 낮았다. 이와 같은 경로는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Fagan(200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매개적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은 심해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들의 일상적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아내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고(Gottman & Krokoff, 1989) 갈등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는 연구들(Bolger et al., 1989; Repetti, 1989)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버지는 부부 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부정적 갈등해결행동을 나타내어 부부갈등이 심화된다고 여겨진다. 그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은 낮게 나타났다. 위 결과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Hong, 2008; Kim, 2009)과 일치한다. 부모의 갈등을 자주 접하는 아동들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결과(Block & Gjerde, 1986; Cummings & Klaczynski, 1989)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부간의 갈등 수준이 심화되면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부정적 갈등해결행동을 유아가 보고 답습하게 되고, 유아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생활환경인 가정에 위기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를 가정까지 연결시켜 부부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부정적 갈등해결행동을 보임에 따라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이렇게 부부갈등 수준이 올라가면 자녀는 위기적인 생활환경 속에 처해지게 되어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 즉,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을 줄이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접적으로는 부부갈등을 줄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결국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추면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과의 소통이 없고 단절된 현대 사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이고 친밀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최저 임금제와 일일 근무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의 아버지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아버지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정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과 스트레스가 유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아버지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버지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면 자연스럽게 부부갈등 수준도 낮아져서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부분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Kim(200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유의성을 확인한 연구들(Chi, 2007; Yoon, 2010)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많은 아버지들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함에 따라 양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참여의 양적인 수치만 증가함에 따라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양

육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부부갈등은 줄어들었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은 높아져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사이에 부부갈등이 매개적 효과를 갖는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부부간의 갈등은 줄어들었다. 위 결과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관계를 원만한 것으로 지각한 Park(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양육참여가 높은 남편을 둔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좋게 지각한다는 Lee(2007)와 Lee(200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밖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부관계의 만족도 간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한 연구들(Lee, 2003; Jeong, 2009)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부부갈등이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지지수준과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하여 부부갈등이 줄어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온정적인 가정 분위기가 연출되고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 정서지능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 수준은 낮은 양육참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도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증대함에 따라 전업주부가 줄어들고 더 이상 자녀양육은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 아버지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기존의 가부장적인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버지들의 교육을 통해 양육참여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게 하여 인식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부부갈등 수준은 내려가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져, 가정 분위기는 한층 밝고 긍정적이 될 것이다.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과 가정 분위기의 긍정적인 변화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부갈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부갈등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은 관찰식 질문지로 구성하여 어머니가 체크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자녀를 관찰하고 체크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기분이나 감정 등의 주관이 개입되어 변인들 간의 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조사자가 직접 관찰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관찰자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관찰하여 체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뢰성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조사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임의 표집에 의해 서울, 경기도, 경북 및 전북지역의 몇몇 기관에 다니는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신뢰성 있는 표집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관련 변인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갈등만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으나, 매개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다른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편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부모의 내적, 외적 변인과 유아의 내적, 외적 변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에 관련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부부갈등을 거쳐 유아의 정서지능에까지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거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의 다양한 체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경로의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각 가정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해 이해하고 유아의 정서지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어머니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아버지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아버지 관련 변인들도 유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혀 아버지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

- 가족스트레스연구회(1995). **아빠의 스트레스**. 서울: 창지사.
-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문용린(2011). **문용린 교수의 정서 지능 강의: 부모와 아이가 함께 키워야 할 마음의 힘**. 서울: 북스넛.
- 우수명(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14.0**. 서울: 인간과복지.
- Ahn, J. Y.(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Block, J. H., Block, J., & Gjerde, P. J.(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 827-840.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Wethington, E.(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Chi, S. H.(2007). *Relations between rates of father's participating in child-rearing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Choi, K. S.(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y of child and the child 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 of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Choi, Y. M.(2004). *The influence of child's and family's characteristics on jealousy affect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in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un, Y. M.(2000). *Vulnerability-stress-adaptation integrative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Cohan, C. L., & Bradbury, T. N.(1997). Negative life events, marital interaction, and the longitudinal course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28.
- Crnicek,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ek, K. A., Gaze, C., & Hof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Cummings, E. M., & Klaczynski, P. A.(1989). Responding to anger in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309-314.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6.
- Dumas, J. E., & LaFreniere, P. J.(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6), 1732-1754.
- Dunn, J., & Brown, J.(1991). Relationships, talk about feelings and the development of affect 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In J. Garber, & K.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gan, J.(2000). Head start fathers' daily hassles and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 329-346.
- Frodi, A. M., Lamb, M. E., Leavitt, L. A., Donovan, W. L., Neff, C., & Sherry, D.(1978).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to the faces and cries of normal and premature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90-498.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Han, S. Y., & Park, S. Y.(1996).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goodness/poorness-of-fit with temperament. *Journal of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7(1), 245-258.
- Hong, S. H.(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1), 161-177.
- Hong, S. P.(2008).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ir friend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Jeong, Y. J.(2009). *The relations amo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adjustment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Joe, S. Y.(2003). *Parents' daily stresses, preschool children's stresses and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Jung, H. H., & Choi, K. S.(1992).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ment. *Journal of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3(1), 38-51.
- Jung, O. B., Jung, S. H., & Lim, J. H.(2007). *Emotional development & emotional intelligence*. Seoul: Hakjisa.
- Jung, S. H.(2007). *A study on longitudinal interac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ang, I. H.(2009). *The effect of mother's variations on creativity personal-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ural Medicine*, 4, 1-39.
- Kim, C. H.(1995). Relationship of the daily hassle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trategies with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1), 44-69.
- Kim, E. J.(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pract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im, H. J.(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of child rearing between a working mother in a dual-income family and a full-time housekee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H. S.(2009). *The influence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friendship: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im, I. H.(2011). *Relationship of the maternal stress and maternal efficacy of mothers to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Kim, J. H.(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J. S.(2000).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L. J.(1999).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Y., & Seo, Y. S.(2008). The influence of maladaptive schema and daily hassl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4), 1243-1267.
- Kim, Y. S.(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nurturing stress derived from the employment of mothers and social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ed Company.
- Lee, H. K., & Lee, E. H.(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levels of parents and behavior problems in their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 coping behavior. *Journal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2(3), 43-68.
- Lee, H. O.(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double-income families' parenting stres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J. E.(1998).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trait, hassles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 Lee, J. H.(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th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Lee, J. S.(2003).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4(3), 99-108.
- Lee, M. H.(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Lee, Y. Y.(2007). *The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Mayer, J. D., Dipalo, M., & Salovey, P.(1990). Perceiving the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Park, J. H.(2008).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attachment to their young children and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role, and the femal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EQ)*.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 Park, Y. J.(2007). *The effect of parents' daily hassles for children's daily stress and children'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Park, Y. M.(2009).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and husband'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perceived by mother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Patterson, G. R.(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mew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 234-264). N.Y.: McGraw-Hill.
- Pyun, E. S.(2004). *The Mother's role of recognition and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having children from infants to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epetti, R. L.(1989). Effect of daily workload on subsequent behavior during marital interaction: The role of social withdrawal and spouse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52-659.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hin, Y. R., & Kim. Y. H.(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pla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4), 81-97.
- Suls, J., Wan, C. K., & Blanchard, E. B.(1994). A multi-level data-analytic approach for evaluation of rela-

- tionships between daily life stressors and symptomatology. *Health Psychology*, 13, 103-113.
- Woo, G. M.(2007). *The parenting stress by job satisfaction and social network in the kindergarten teachers having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Yang, M. K.(199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ve fathering and the attachment security in a three year old child to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Yee, Y. H., Lee, J. S., & Cho, B. H.(1999). Development of the generative fathering scale. *Journal of Human Ecology*, 37(12), 79-89.
- Yeo, I. D.(2001). *The effect of married couple's conflict and self-differentiation level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Yoon, H. K.(2010). *Effects of the father's emotional empathy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on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접수일 : 2012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12년 06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19일